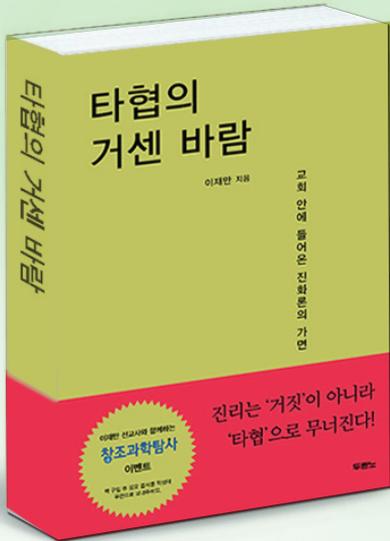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5 2017



이재만 선교사의 다섯번째 책 《타협의 거센 바람》(두란노)이 출판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타협이론의 뿌리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고 그 과학적 문제와 성경적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타협이론이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식의 수십억 년 지질시대를 거치며 진화와 멸종이 반복된 진화 역사를 성경과 섞어서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의 확산은 분명 교회에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별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성경의 정확무오함과 복

타협의 거센 바람

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아래 추천의 글들을 소개합니다.

과학과 신앙의 긴장을 틈타고 들어온 진화론의 거센 물결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만 선교사는 진리의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다. 놀랍게도 그는 이 짧은 책에서 매우 깊이 있는 역사적 논쟁을 파헤치고 있다. 목상과 적용과 체험에서 비롯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성경적 기초 위에서 뒤집어엎는 설명은 그 누구보다 탁월하며 시의적절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의 사실성을 무너뜨리려는 진화론의 여러 가지 가면들을 '타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파헤치며 창조를 증거하는 논리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는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진화론의 거센 바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성경 해석의 틀을 진화론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 나는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타협이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재만 선교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타협이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어 주고 있다.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

지질학자인 저자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지질시대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 지질시대표가 지질학과 생물학의 진화론적 통합이자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의 합작품임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이러한 논리적 비판은 지질학에 대한 저자의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통해 드러난 가장 예리한 통찰이다. 특히 환영할 일은, 최근 한국에 등장한 타협이론의 저서들이 젊은 지성인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상황에서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

끊임없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이재만 선교사와 함께 수차례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할 때마다 터질 것 같은 나의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어둠의 거센 바람을 거스르는 그 감격스러운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많은 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김인중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특히 최근 몇 해 사이에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써 다양한 타협이론들이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진화론적 세태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진정한 진화론자와 참된 그리스도인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입장 모두에 어울리지 않는다. 타협이론은 정상적 성경 해석, 곧 성경에서 이론이 나오기보다 기존 진화론 이론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안국한 미국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교수, 선교학 박사

교회의 위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교회 밖의 세속 정신은 언제나 있었고, 세속 정신에 타협하려는 교회 안의 움직임도 언제나 있었다. 이 책은 세속 정신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밝히고, 또한 그에 대한 교회의 타협이 무엇인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과학의 이름으로 위장된 세속 정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속 정신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 세속 정신과 타협하지 않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조병수 합동신학원 총장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진화론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첫 메시지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어떤 형태든지 강자가 선인 사상으로, 이에 따르면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 정말 무서운 사상이다. 세계 역사의 모든 악이 이런 사상에서 나왔다. 많은 성도들이 창조과학 탐사에 참석한 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 책을 읽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저자는 진화론보다 타협이론이 왜 더 위험한지를 밝힌다. 믿음의 싸움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타협의 거센 바람’이 ‘파멸의 거센 바람’이 되지 않도록 성경을 사수 하려는 한 과학 선교사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다.”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진화와 타협하는 이론에 썩기를 막는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성경 곁에 놓여 있기를 바란다. 도대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고에 왜 그토록 휘둘리는가? -조정민 베이직교회 담임목사

타협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는 것이다. 무신론에 근거하여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진화론과 이 진화론에 성경을 꿰맞추려는, 결과적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각종 타협이론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 출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자인 이재만 선교사에게 격려를 보낸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신학교, 교회의 지도자들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최보아스 몽골 국제대학교 외국어교육 대학원 교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있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사망을 완전히 처리한 십자가의 예수를 부정한다. 그들은 육일창조를 부정하며 하나님은 진화론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님은 분명 성경의 저자가 아니다. 창조주가 구세주이고 구세주가 곧 앞으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이시다. 이번 책을 비롯해 그의 저서 모두를 읽어 보길 권한다. -최인식 전 미국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의사

지식과 신앙적 갈등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지성들과 젊은이들로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몰락한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만 선교사가 시기 적절하게 타협이론의 뿌리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지적 교만이 극에 달한 지성들과 한국 교회에 경정을 울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 지식인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지성이 혼탁한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강력 추천한다.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제7대 회장, 전북대 교수, 세계 100대 과학자



창조주에 대한 불쾌감 The Offense of the Creator

최근 한 목사가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블랙 리브스 매터 (Black Lives Matter: 흑인 인권 운동)” 집회에서 잔뜩 화나있는 군중에게 준비없이 복음을 설교했다가 폭력 사태가 터질 뻔한 일이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거친 비난을 퍼부었고, 한 교수는 그 목사에게 그 “악한 복음”을 다른 곳에서나 전하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은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격렬한 논쟁을 유심히 들었다. 그 목사가 전한 메시지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로 반응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어떻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적대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아주 많지만, 이런 식의 다소 낮은 반응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기원에 대한 것이다.

미국인들 삶의 표본이었고 수백 년 동안의 정적이었던 기독교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 하늘로부터의 초월적인 법은 없고, 잘잘못,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 최근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도덕적 목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한 닭고기 식당 업체에서 나왔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다소 무심하다. 1920년대, 교회 지도자들이 진화론이란 과학적 사기를 통한 창조주에 대한 정면 공격에 대항한 한 목소리와 함께 서기를 실패했을 때, 중대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² 창조자인 하나님은 공적으로 제외됐고 90년 후 우리는 전체 크리스천의 후퇴라는 끔찍한 무게를 느낀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기독교의 빈 공간을 채웠다. 진화론이 충분히 우주,

생명, 그리고 사람의 기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제시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항하는 항의는 만약 그가 대학 교수가 아니라면 순전히 “종교적”인 의도로 무시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면 바로 쫓겨날 것이다.)³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심지어 산타 클로스나 이스터 버니보다 더 실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버렸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다거나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공적으로 주장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상상, 비이성,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적인 인식이 복음에 대한 적대감의 뿌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이 기원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한다는 추측에서 시작한다.

명백히, 진화론은 적절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보다는 물질주의적 추측(materialistic speculation)이 마치 과학이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진화론은 매우 못된 일을 해왔다. 얼마나 많은 수학을 무시해야 우리가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처음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리학을 부정해야 차가운 암흑 물질같은 상상 속의 물질과 급격한 팽창이 만들어낸 상상 속 빅뱅이론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속아야 유익한 돌연변이가 나의 모든 유전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물질주의적 과학은 확실히 우주, 생명, 동물, 그리고 사람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신뢰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사실 과학적 넌센스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가 궁극적으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모든 공교육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간다. 싸늘한 반응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하시기 않았다면 모든 종교들은 단지 임의적이고 인간의 상상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어떻



“변화는 항상 한 세대 다음에 있다. 우리가 지금의 아이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종교는 다음 세대에 사라질 것이다” - 무신론자 로렌스 크라우스

게 누가 감히 그들의 상상의 신이 다른 종교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편견과 세상의 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립 학교들이 많은 부분에 실패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진화 과정의 산물이며 우주에 홀로 있는 존재라고 설득하는데 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의미와 목적은 사람들이 찾아보려고만 한다면, 모든 피조물 속에서 - 인간 관계 속에서, 만물 속에서, 심지어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 안에서조차 - 발견된다.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서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복음에 대해 분노가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청중들에게 사도행전 17장과 14장에서 두 번 주장했다. 유대인과 다르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러한 이방 문화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신은 단순히 우상이었고, 아테네에서는 우상 숭배와 에피쿠로스 및 스토아 학파의 명백한 물질주의였다) 알 길이 없었다. 어느 쪽이든 우주는 스스로 창조되었고 초월적인 창조주는 불필요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칼 세이건 (Carl Sagan)이나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와 같은 물질주의자들의 믿음과 큰 차이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상 숭배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분명히 그러하다. 바울이 이러한 청중들에게 어떻게 연설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1.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언하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루스드라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했다.⁴ 십자가를 설교하기 전에 이것은 필수적이다. 스스로가 기원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이 과정을 피하는 설교자들은 자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2. 바울은 아테네의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조사했다. 왜 일까? 이러한 우상들은 한 유대인인 바울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확실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상들을 조사했다. 바울은 문화와의 연결점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현 시대의 진화론의 우상을 조사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간다는 점에 있어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바울은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 이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려 했다. 믿음과 합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복음이 오랫동안 “과학과 종교”라는 수렁에 빠져있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진리가 항상 고통을 겪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다.

4.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라고 선언했다. 바울은 기원의 중요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을 이해했고 헬라인들이 고대부터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철학적 질문들을 정확하게 정의했다. 그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원인임을 선언했다.

5. 바울은 이방신들의 무력함을 보였다. 생명의 주인, 인류의 조상, 그리고 나라의 기초, 식물의 제공자,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인 하나님을 높임으로서 우상들의 무능력이 노출되었다.⁵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증명이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

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17:31)

6.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했다. 그의 연설은 “...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와 함께 끝났다. 이 구절에서 동사는 선언하다 또는 명령하다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설교를 거의 듣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신적인 권위와 함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설교가 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적대적이었던 대학 캠퍼스의 군중에게 전했던 그 목사의 즉석 복음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창조주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우리 세대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생각해 보라. 우리의 문화는 이방 문화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창조주는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God who is there)이 계신다. 그리고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He is not silent).



Bill Hoesch
M.S. Geology

1. 2012년 6월, 칩펠에이 (Chick-f-A: 미국의 프랜차이즈 닭고기 음식점의 CEO는 동성결혼을 “선동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2. 1925년 테네시 주의 대이튼 시에서 일어난 스코프스 재판 (원숭이 재판)은 미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때 진화론은 “인정될” 전조였고 기독교는 공격으로 조롱을 받았다.
3. 2008년 개봉된 영화 추방된 자들: 허용되지 않는 지성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은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단지 진화론에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출된 일들을 담았다. 제리 버그먼과 케빈 위스가 제작한 영화 반대자들의 학살 (Slaughter of the Dissidents) 또한 학문적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례들을 영화화 했다.
4. 바울은 자연을 통해 (롬 1:20)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자신 있었다 (롬 2:14-16).
5. 우상은 언제나 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공격한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조롱하고 넘어뜨리며 경고하셨다 (출 32:1-6, 20-24; 유 6:25-27; 시 115:4-8; 사 40:18-26, 41:6-7, 22-24; 44:9-20; 45:9-10, 20-21; 렬 10:2-5, 8-12; 14:22; 51:17-19; 롬 1:21-25; 고후 10:3-6; 요일 5:21) 우상 숭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ACT News

연합팀 창조과학탐사

지난 3월 31일 ~ 4월 7일 동안 한국의 젊은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창조과학 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창탐은 총 33명이 참석하였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참으로 진화론으로 둘러 쌓여 있음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 의견을 통해 이 진화론 시대에 창조과학을 도구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지 귀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LA와 시카고에서도 여덟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올 해부터 한국에서 오는 팀들은 오전에 도착할 경우, LA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바



Painted Desert

로 애리조나 주 Kingman으로 이동하여 첫 날 숙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규화목 국립공원(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페인티드 사막(Painted Desert), 운석구(Meteor Crator)등이 경유지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수 심판 격변에 대하여 더욱 많은 증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합팀도 이곳을 방문하여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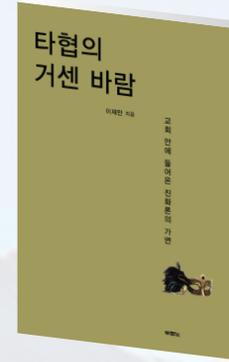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회장은 지난 3월 1~26일 한국을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행복한국교회(담임목사 박진성), 서초총신교회(배철희), 일산산성교회(유희

숙), 일산일암교회(김성일), 영신교회(이영무), 대전온누리교회(박태영) 등 각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8개의 주제로 12시간 동안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번이 두 해 째입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한동대학교에서 매 학기 '창조와 진화' 과목뿐 아니라 매년 3월 말 이와 같은 집회를 인도합니다. 집회 기간동안 한국에 붙고 있는 타협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여러 방안도 함께 의논했습니다.

합동신학원에서 매년 3월 특강이 열리는데 특별히 타협이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는 6월 말 합동신학원 신학생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는데, 매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변호사 모임인 크레도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를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타협의 거센 바람" 출판

이재만 선교사의 다섯 번째 책인 <<타협의 거센 바람>>(두란노)이 출판되었습니다.



표지글에 실린 바와 같이 많은 목사님,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 분들이 성경적 창조 신앙 정립과 바른 분별을 위해 매우 시기적절한 출판이었음을 환영하며, 적극 추천 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탁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많은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창조과학탐사를 다녀간 인천동춘교회 청년부에서 이재만 선교사 신간 <<타협의 거센 바람>>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한동대



인천동춘교회 청년부



연합팀



Teacher conference



영어권 지역 소식

Bill Hoesch는 지난 3월 25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격변적 지질사건들에 관심을 보이며 성경의 역사가 지구 곳곳의 많은 흔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한인 교회에서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열어 자녀들에게 참된 기원과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는 기회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영광교회

지난 4월 1일에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KCEF) 주관으로 열린 VBS Teacher Conference에서 Bill Hoesch와 노휘성 강사는 Q&A 데스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인 교회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창조신앙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조과학선교회의 영어권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창조과학 단체들을 통해 공급되는 좋은 영어권 자료들을 소개하고, 궁극점들을 소통하며, 각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 일바인 베델교회에서도 동일하게 Q&A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M 창조과학탐사 모집

일정 : 7월 10~13일 (3박4일)

대상 : 영어권 9학년 ~ 청년 및 대학생

인도 : Bill Hoesch, John Kim

참가비 : \$150

경유지 : Los Angeles(주님의영광교회) - Mojave Desert - Colorado River - Colorado Plateau - Williams - Grand Canyon - Glen Canyon Dam - Kanab - Bryce Canyon and Zion National Parks - Virgin River Gorge - Las Vegas - Los Angeles

그랜드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및 자이언캐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3박4일의 이번 탐사는 영어권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지질기록에 남겨진 수많은 증거들을 지질학 전문가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직접 보며 성경의 역사에 분명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행은 후원자께서 지원해주신 프로그램으로 \$540의 경비를 \$150에 참여하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및 문의 : HisArk@gmail.com, 562-868-1697



별

별빛이 수십억 년을 말해주나?



지금까지 측정된 빛의 평균속도는 진공에서 초당 299,792 km로 약 초속 30만 km 이다. 문헌에 따르면 1676년 이후 164회 이상 광속을 측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하지만 이 광속 측정 값들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렵고 변화가 거의 없거나 미량이므로 첨단 장치로도 광속의 증감을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여하간 광속이 일정하다고 할 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둘레를 일곱 바퀴 그리고 반 바퀴를 더 도는 거리를 진행한다. 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지구에서 달까지 약1초 걸리고 태양까지는 약 8분이 소요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바라 보는 태양은 8분전 과거의 태양을 보는 것이며 이 순간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 눈에는 8분 후에야 하늘이 깜깜해질 것이다.

같은 원리로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진공에서 측정된 광속을 유지하고 달리면 태양계의 끝 행성인 해왕성까지 약 5시간 30분 소요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센토리(α Centauri)까지는 4년 6개월이 걸린다. 이처럼 빛이 일정한 속도로 먼 천체로부터 지구를 찾아 온다고 생각할 때 그 별빛을 보는 것은 그 별의 과거를 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먼 별빛을 볼수록 더 오래 전의 과거를 보는 것일까? 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는 250만 광년거리에 있다는 안드로메다 은하(M31), 이 은하에

서 오는 빛을 볼 때 250만년 전의 과거를 보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모든 영역에서 유효한 것일까? 250만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출발한 별빛이 엄청난 거리의 공간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 오고 있는 것일까?

일찍이 물리학자 노만(Norman)과 새터필드(Satterfield)는 빛의 속도가 변한다는 제안을 발표하여 학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2, 3] 그들의 주장은 과거 빛의 진행 속도가 오늘날보다 매우 빨랐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기존 물리학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는 물리학의 대부분 기초 이론들이 광속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양자역학에서는 광속이 빛이 통과하는 영역의 자장이나 중력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다룬다. 따라서 중력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빛마저 굴절되고 흡수되어 버린다는 개념이 블랙홀 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광속이 절대 불변의 물리량이 아니며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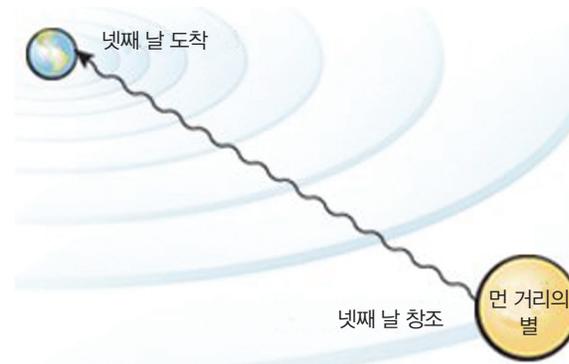
그러면 먼 우주 공간을 달려서 지구까지 오는 별빛은 통과하는 영역의 중력이나 자장 또는 매질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별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거리에 있다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적어도 250만 년 이상의 나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측이다. 이런 점에서 별빛을 통하여 우주 나이를 추정하는 접근의 한계는 분명하다.

한편 별빛을 통하여 우주가 수십억 년 내지 수백억 년 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오늘날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그런 공학적 기법이나 기술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의 연대가 6,000여년의 역사라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수십억 광년이 걸리는 빛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을 사실로 확신하는 과학자들은 다음 표와 같이 여러 학설로 설명해 볼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4, 5]

학 설	내 용
진행하는 빛 창조설 (Traveling light creation theory)	하나님이 빛이 지구에 즉시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별빛, 지구에 도착하는 별빛으로 창조했다는 주장
광속 감속설 (Light speed dilation theory)	과거 빛의 속도는 매우 빨랐고 점차 에너지를 잃어가므로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주장

시간 팽창 이론 (Time dilation theory)	이동하는 속도나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늘어져 길어지는 것을 말한다. 빛이 과거에 더 빠르게 이동하였다면 시간은 크게 늘어졌을 것이다. 또 중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시간이 팽창된다는 이론
소우주 창조론 (Small universe creation theory)	창조시 작은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였고 그 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시간 동시성 이론 (Time synchronization theory)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은 시간의 경과를 경험하지 않는다. 때문에 빛의 여행은 순간적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 4일에 별들을 만드셨다. 따라서 별빛은 넷째 날에 별들을 출발했을 것이고 우주의 현지 시간으로 같은 넷째 날에 지구에 도착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은하로 부터 오는 빛은 우주의 현지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동일한 넷째 날에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론

이와같은 과학적인 설명 외에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고 복잡하고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으로, 짧은 시간에 빛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관통하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별들이 창조됐을 당시 즉시 별빛이 순간적으로 지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6]

이는 창세기 1장에 기술된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이 각종 식물을 만드실 때 막 움트는 씨앗

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식물로 즉시 만드셨다. 각종 물고기들도... 하늘을 날오는 새들도 종류대로 완전히 기능을 하는 장성한 피조물로 지으셨다. 육지 동물들도 장성한 피조물로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도 아기가 아닌 장성한 성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실 때 별들이 지구를 밝히고 창조(창1:14)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빛이 우주공간을 즉시 관통했을 것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1] Prokhovnik, J. & Morris, T., A Review of Speed Light Measurements Since 1676, CEN Tech. Journal, Vol. 7(2), 1993.
 [2] Norman, T. and Satterfield, B., The Atomic Constants, Light and Time, Stanford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1987.
 [3] Evered, M.G. The recent decrease in the velocity of light - what decrease? Creation Ex Nihilo TJ 7:1, 1993.
 [4] Byl, J., On Time Dilation in Cosmology,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34(1): 26-32, 1997.
 [5] Lisle, J., Does Distant Starlight Prove the Universe Is Old? The New Answers Book, Master Book, 19, pp.245-254, 2008.
 [6] 존 맥아더 지음, 우주와 인간의 시작, 부흥과 개혁사, 2009.



창조탐사는 하나님을 안는 순간,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 주는 여행입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날 사랑하심도 고백했지만 살면서 종종 잊고 원망하던 그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의 '진짜로 날?' '정말로?' 라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줍니다. 실체가 있어 안고 만지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처럼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영리

선교사님의 열정을 넘어 감동적인 가르침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심을 더 굳건히 믿게해준 창조과학탐사. 저에게 있어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래

이번 창조과학탐사 여행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신진호



창조과학탐사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한 부담감과, 왜 창조를 탐사해야 하는지?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동안에 분명 예비해놓으셨을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탐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믿지 않고 있었던 저의 부족함들과 제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면서 더불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분명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중하

무엇보다 성경과 자연의 증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퍼즐로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저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만 아는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속에서 전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김한나

이 귀한 곳으로 부르셔서, 먼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부담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음세대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성경이 사실임을 먼저 믿은 세대로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으로...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김혜정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ACT Schedule

4 /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 /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 /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 /25- 6 /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 /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 /9-10	창조과학세미나 (LA소망장로교회EM), 김선욱
6 /10	창조과학세미나 (순회선교단), 이재만
6 /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 /19-22	창조과학세미나 (Johns Creek Korean Church Youth Retreat, GA), 김선욱
6 /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 /26-28	창조과학탐사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욱
6 /29- 7/1	창조과학탐사 (얼바인베델교회 Youth EM), 김선욱
7 /3-12	창조과학탐사 (과천약수교회), 이재만
7 /10-13	창조과학탐사 (EM모집), Bill Hoesch
7 /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수), 이재만
7 /20-23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